

한국현대사의 이해

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

7주차. 박정희(2)
1강. 군사쿠데타



학습 내용

1. 박정희는 왜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는가?
2. 쿠데타에 대한 긍정적·부정적 평가는 무엇인지?



학습 목표

1. 박정희의 긍정적·부정적 유산에 대해 학습한다.
2. 군사쿠데타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 그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

제1강 군사쿠데타





생각해 볼 문제



- 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는가?
- 나는 지금까지 5·16군사쿠데타를 어떻게 평가하였는가?



1] 박정희에 대한 이미지

✓ 박정희에 대한 이미지들은 정신분열증적(schizophrenic)

✓ 박정희를 둘러싸고 지금도 한국사회는 집단적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음

✓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박정희를 다음과 같이 평가함;

- ➡ 단군 이래의 가난을 해소하고 민족을 중흥시킨 영도자
- ➡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
- ➡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원형을 만든 산업화 지도자
- ➡ ‘싸우면서 건설’한 안보와 경제성장 병행 발전론자



1] 박정희에 대한 이미지

☑ 진보주의자들과 민주화론자들은 박정희를;

- ➡ 민주적 헌정 체제를 파괴하고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까만 선글라스를 낀 군부집정관(praetorian)
- ➡ 일본 제국, 남로당, 미국 등 당대의 권력에 편승하여 권력을 장악 유지하려 한 기회주의 정치군인
- ➡ 제3공화국의 민주 헌법을 수호해야하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초헌법적, 탈 헌법적으로 강압적 정보 통치를 한 ‘행정적 민주주의자’
- ➡ 자신이 만든 민주 헌법을 유린하고 한국 역사상 가장 강압적이고, 초법적이고, 독재적인 유신체제를 수립한 유신군주
- ➡ 분배보다는 성장, 소비보다는 성장을 우선하는 권위주의적 개발모델을 ‘돌진적’으로, 압축적으로 달성한 개발 독재자
- ➡ 긴급조치 발동을 통해 많은 민주인사들을 박해한 인권 유린자



1] 박정희에 대한 이미지

독재 (dictatorship) / 독재정

- 한 사람 또는 일정한 집단에 권력을 강압적으로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권위적인 정치
- 한 사람 또는 일정한 집단이 마음대로 가위질하듯 지배한다는 뜻
- 독재 정치에는;
 - 개인이 행하는 일인 독재
 - 군인들이 행하는 군사 독재
 - 민간인이 행하는 문민 독재
 - 민중 등 계급이 행하는 계급 독재(프롤레타리아 독재)
 - 다수가 행하는 대중 독재



1] 박정희에 대한 이미지

독재 (dictatorship) / 독재정

- 국민들의 지지 여부에 따라;
 -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독재
 - 국민 다수에 의한 독재
 - 국민 대중의 지지를 받는 독재



1] 박정희에 대한 이미지

- ✓ 조선왕조 이후 최초로 군부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군인집정관
- ✓ 쿠데타를 기획하고, 고안하고, 실천에 옮기는 과정은 그의 마키아벨리적인 특성이 표출된 것임
- ✓ 그러나 5·16은 헌정의 중단을 가져왔고, 헌정주의 역사의 오점



1] 박정희에 대한 이미지

헌정 (constitutional government)

- 입헌정치, 즉 헌법에 의거해 법을 존중하는 정치
- 근대 헌법의 특징인 법치주의, 기본적 인권의 보장, 권력 분립이 확보되어야만 가능



2] 5·16 군사쿠데타

☑ 5·16 군사쿠데타 불가피성의 근거는;

- ➡ 박정희와 쿠데타 주역들은 사회세력의 유인 때문에 쿠데타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
- ➡ 제2공화국이 '시위로 일어서고 시위로 망했다'고 비판
- ➡ 연속적인 시위로 인한 통치 불능의 상태
- ➡ 이를 시정하라는 안정 희구적인 중산층의 사회적 요구에 의해 쿠데타가 촉발되었다고 주장



2] 5·16 군사쿠데타

☑ 5·16 군사쿠데타가 사회세력의 유인이 아니라는 근거는;

- ➡ 사회세력의 유인(pull) 요소보다는 군부 자체의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(push)의 요인을 강조함
- ➡ ‘시위 민주주의’(democracy by demonstration) 현상은 4월 2일 대구충돌 이후 급감
- ➡ 경제위기로 인한 민생고가 군부의 정치개입을 불러왔다는 주장도,
 - : 민주당 집권기간 중의 경제 성장
 - : 실업률 감소
 - : 미국의 원조 증액 약속
 - : 한일관계 정상화 시도 등으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주장함
- ➡ 사회세력의 유인이라는 정당성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, 군부 내의 불만 소외 세력의 주도
- ➡ 이런 태생적인 정통성의 결함 때문에 2년간의 군부 직접통치를 거친 뒤 형식적 자유민주주의로 복귀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



2] 5·16 군사쿠데타

☑ 일반적으로 쿠데타 이후 군부의 선택은;

직접통치의 지속

집정 포기와
민간인으로서의
완전한 권력이양

군인이 사복으로
갈아입고 정치에
참여하는 재민간화

이 세 가지의 길 중에서
재민간화(recivilianization) 선택



2] 5·16 군사쿠데타

☑ 이에 따라 쿠데타 지도자들은;

- ➡ 군복 대신 사복으로 갈아입고
- ➡ 선거와 정당을 통해 지배하는 유사 민간화된 군부 지배로 노선 전환

☑ 제3공화국의 특성은;

- ➡ 초기에는 헌법이 제정되고, 형식적 민주주의가 일정 정도 복원됨
- ➡ 박정희와 쿠데타 지도자들이 사실상 지배한 ‘집정관적 민주주의’ (praetorian democracy)



2] 5·16 군사쿠데타

형식적·절차적 민주주의(procedural democracy)

-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과정과 연관된 절차적 원리가 중요
- 민주국가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을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
- 이런 절차의 규범으로는 토론 절차, 관용 정신, 다수결 원리, 비판 및 타협을 들 수 있음



2] 5·16 군사쿠데타

형식적·절차적 민주주의(procedural democracy)

- 민주주의의 정당한 절차에 중점을 둔 개념이기 때문에
 - 현재 정권이 직접선거 또는 국민 동의에 의해 위임 받은 조직이나 제도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지
 - 정치를 하는 권력에 도전하는 많은 정당들이 있는지
 - 정당한 선거에 의해 합법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지
 -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은 중요한 기준이 됨
- 이런 절차들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



2] 5·16 군사쿠데타

실질적 민주주의(essential democracy)

- 모든 계층의 정치적·사회적·경제적 평등이 확보되는 동시에 정치참여가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관점
-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인 평등과 참여를 강조하는 관점
- 공산권 국가 및 제3세계의 민주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개념
- 형식, 절차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권력과 그 구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
-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;
 -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끊임없이 정책에 반영하고
 - 국민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
 - 시민사회와 국가의 힘이 평형을 이루거나
 - 또는 시민사회가 더 우월한 관계를 유지하는 체제가 되어야 함



학습 정리

?

5·16 군사쿠데타는 사회세력의 유인 요소보다는 군부 자체의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 요인이 더 강력하게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.

?

태생적인 정통성의 결함 때문에 형식적 자유민주주의로 복귀하게 되었다.

?

쿠데타 이후 군부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정치에 참여하는 재민간화 방식을 선택하였다.

